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월 6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24장 22-27절

설교제목 :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2019년 한 해를 열면서 ‘너희는 기록하라’는 말씀으로 새 해를 열었습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즉각 석방하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다고 하였습니다.(22-23절) 그리고 수일 후에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더불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요체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믿음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25절)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대부분 관계적 개념인데, 본문에서의 의는 도덕적 행위 즉 의로운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벨릭스는 의와는 거리가 먼 부도덕한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총독으로써 로마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모든 것을 공정하고 옳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이태 동안이나 구금해 두었습니다. 사실 당대 로마법에 따르면, 뇌물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벨릭스는 바울 사건 이전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더불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윤리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사실상 세 번째 아내였는데, 사도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막내 딸입니다. 드루실라의 미모는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미모가 빼어나았습니다. 따라서, 벨릭스는 그녀의 미모에 반하여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드루실라 역시 벨릭스에게 세 번째 시집을 온 것입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비윤리적인 모습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침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선포이기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의를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약1:27)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의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공급하심과 회복이 일어납니다.(마6:33)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절제는 각종 욕망의 억제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절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한 것은 예수의 도에 대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26절) 아마도 벨릭스는 바울이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왔다’(행24:17)고 언급한 변론의 내용을 염두해 두고,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신앙의 변질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본문에, ‘절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인데, 뜻이 본래는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정복해서 절제 할 수 있습니까? 절제라는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는 ‘무엇 안으로’란 ‘엔’이란 접두어와 ‘힘’, ‘가능성’을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절제의 뜻은 ‘힘 안

에 있다’는 뜻인데, 정확하게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절제’를 영어로 보면 ‘스스로 통제하다’는 ‘self-control’인데 헬라어의 뜻은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절제는 자기통제의 힘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상태일 때라야 가능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면,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말한 장차오는 심판은 앞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24:15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의인도 살아나고 악인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차이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어 그 날에 마련된 모든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심판은 하나님의 썸하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히11:6) 우리가 상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하더라도, 우리는 빛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절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는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을 말을 듣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바울의 말을 중지시키고, 결국 이 년이란 시간이 경과했습니다.(25, 27절) 결국 이태의 시간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벨릭스는 변화되지 못하고, 어두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태를 헛되게 보내고 만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때 변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요체가 무엇인지 각각 이야기해 봅시다.
- 2)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의인도 살아나고 악인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상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하더라도, 우리는 빛된 의로운 삶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 각자의 신앙적 목표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